

제32호(2012. 10. 29)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1. 농업에 부는 봄바람	3
2.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5
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10
4. 도시농부와 도농상생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김태곤** 연구위원 02-3299-4241 taeg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업은 인간의 심신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도시민은 과밀과 혼잡의 일상 속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농업체험을 통해 해소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족이 함께 소비한다. 농업을 매개로 심신 치유를 갈망하는 ‘도시농부’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농부는 일반 농업인과 경합하는 존재가 아니다. 교류를 확대하고 귀농으로 발전하여 도농상생의 주역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현재 전국 텃밭농원 면적은 485ha, 이용자수는 76만 6,000명에 달한다. 이것은 2010년에 비해 각각 381ha, 61만 3,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중요한 기능은 생물다양성이나 생태보전 기능,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주민의 공동체 기능, 학교텃밭·주말텃밭 등의 체험을 통한 교육·치유기능 등이다.

서울시민이 평가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는 2012년 가구당 연간 27,894원이며,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환산하면 1,018억 원에 달한다. 같은 방식의 2010년 조사 결과(22,668원)보다 5,226원(서울시 전체 219억 원)이 증가하였다.

도시농부는 농업을 체험함으로써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가 된다. 체험을 바탕으로 도시 내에서 교류나 직거래를 반복하면서 농촌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일부 도시농부는 귀농하여 영농후계자로서 정착하기도 한다.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텃밭농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텃밭농지의 확보와 장기적인 보전이고, 기존 텃밭농원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는 대신 이용자는 성실경작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이 보장되어 농촌지역이 안정화되면, 도시농부의 농업참여가 활발해지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도 향상된다. 이로써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축소 산업화되는 농업을 반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에 부는 봄바람

- 글로벌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국토보전이나 경관형성 등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지, 농업인이 영농으로 필요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 한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한양 천도 이후 서울로 집중되던 인구도 2011년 드디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서울집중 현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도시 텃밭농원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¹⁾

□ 콘크리트에서 농업으로

- 농업은 인간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도시민은 과밀과 혼잡의 일상 속에서 누적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농업체험을 통하여 해소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하여 가족이 소비한다. 이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농업을 매개로 심신 치유와 안전한 농산물을 갈망하는 ‘도시농부’가 늘어나고 있다.
-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20년 정도 고령화가 선행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EU, 미국 등에 의한 글로벌의 소용돌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여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는 확대된다.
- 도시농부는 스스로 생산한 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을 가족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1) 2011년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가구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0,503호에 달한다.

농가들과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농촌여행을 한다. 나아가 귀농을 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이 도농 간 격차 문제나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존재하면서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도시농부는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도시농부는 농업체험을 반복하면서 교류나 직거래, 그리고 귀농으로 진화한다. 이것이 도농상생의 길로 이어진다.

2.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 인구기준으로 볼 때 농촌은 과소가 문제인 반면에 도시는 과밀이 문제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2011년 1만 7,400명에 달한다. 우리가 매우 붐빈다고 생각하는 일본 도쿄는 6,030명(2012), 중국 북경은 1,200명(2011)에 불과하다. 과밀 사회일수록 농업이나 농촌으로의 회귀의식이 강해진다.
- 인간이 농업·농촌으로 회귀하는 행동 뒤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도시 과밀을 비롯하여, 식품안전성 문제, 환경 문제, 소득 증가, 여가시간 증대 등이 작용한다. 최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자원 고갈, 가축질병 등과 같이 지구 전체의 위기적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가세한다. 그래서 농업이나 농촌, 식품에 관심과 감시가 강해진다.

□ 도시농업의 다양한 모습

- 도시민의 농업 활동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초기에는 농지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환경보전, 재해방지, 경관형성, 학습, 체험, 치유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도시농업의 공간적인 범위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도시근교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이다. 소비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판매와 유통의 유리성과 함께 소비자의 체험이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가 상승과 환경 규제는 농업경영의 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한다.
- 도시농업에는 산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체험이나 교류에 참가하는 ‘도시민’이 있다. 전자를 ‘생업농업’이라 한다면, 후자는 ‘생활농업’이다. 생업농업의 종류에는 쌀, 채소, 과일 등을 친환경으로 생산

하면서 소비지에 인접한 특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노지농업’과 ‘시설농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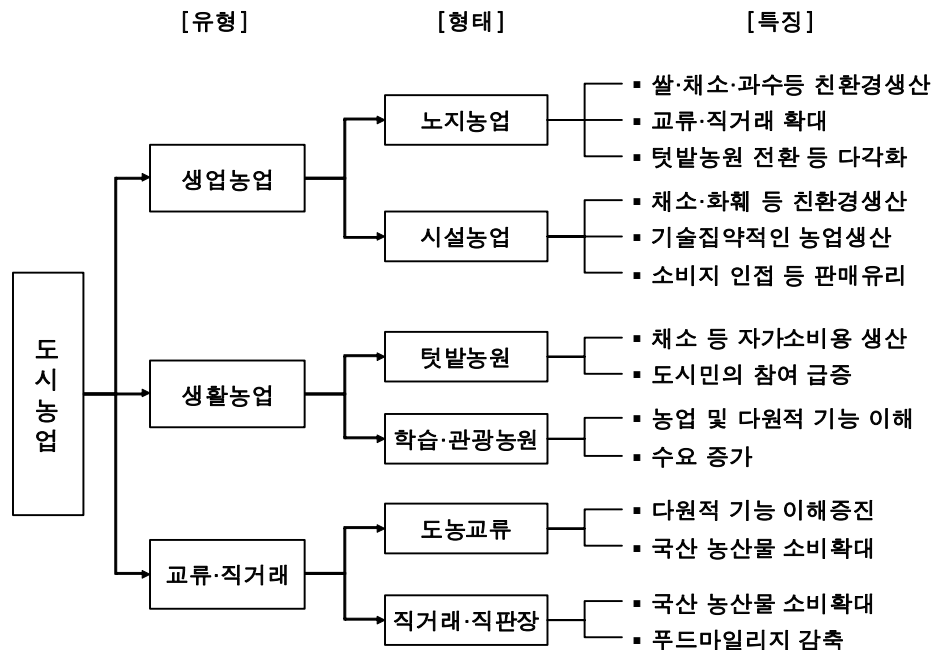
- 생활농업은 기본적인 형태가 ‘가정원예’이며, 대표적인 것이 ‘텃밭농원’이다. 최근 참가하는 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농업을 통하여 농업체험의 즐거움을 느끼고, 농업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이것이 ‘도시농부’가 양성되는 과정이다. <그림 1>

□ 텃밭농원의 다양한 형태

- 농업 체험이나 신선한 채소 생산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텃밭농원의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도시농업법에 의한 도시농업의 형태는
 - ① 가정의 주택을 활용한 주택 내외의 가정원예
 - ② 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일정한 단지로 형성되는 주말텃밭
 - ③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학습형 학교텃밭
 - ④ 도시농업공원 내의 텃밭
 - ⑤ 도시빌딩을 활용한 빌딩의 내외부와 옥상에 분포하는 텃밭 등 주로 텃밭중심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텃밭농원이다. 다원적 기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②의 주말텃밭과 ③의 학교텃밭이다. 2012년 현재 전국 텃밭농원 면적은 485ha(주말 404, 학교 73, 빌딩 7), 이용자수는 76만 6,000명에 달한다. 2010년에 비해 각각 381ha, 61만 3,000명이나 증가하였다.²⁾

2) 김태곤 외. 2012.9.

그림 1.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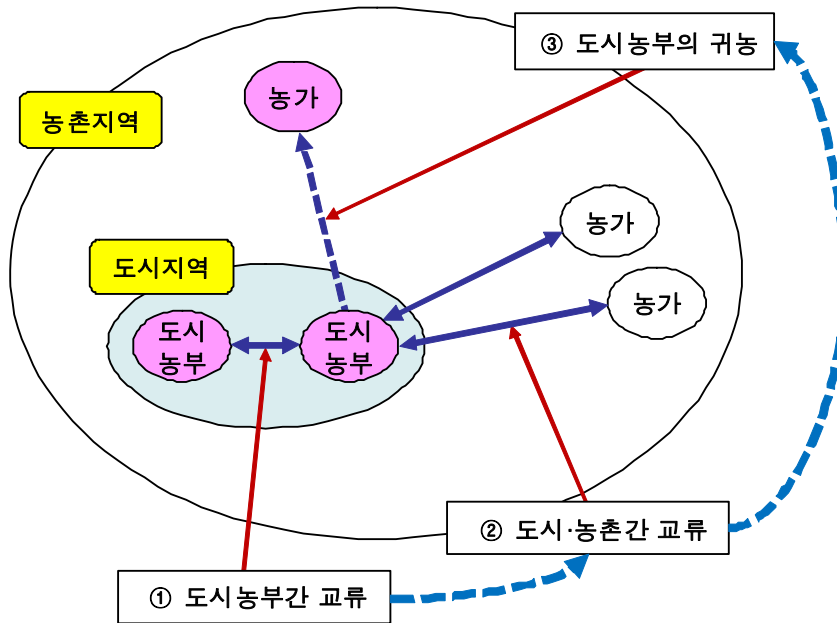


자료 : 김태곤 외, 2010.10.

□ 교류에서 귀농으로 발전

- 도시농부는 체험에서 출발하여 교류나 직거래로 발전한다. 교류는 도시 내의 도시농부 간 교류와 생업농가 간 교류, 농촌지역 일반농가와와의 교류로 확대된다. 교류와 직거래가 증가할수록 국산 농산물 소비가 촉진 되는 동시에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서 환경오염을 감축하는 효과도 발생 한다. <그림 2>
- 도시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 시민들의 체험이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농업,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부는 일반농업과 경합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류와 귀농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농업 진흥을 보완하는 존재로서의 기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림 2. 교류에서 귀농으로의 진화



□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전개

○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농지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지원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 ① 국가는 1994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휴양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관광농업과 도시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② 2003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주민에 대한 주말농원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하여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 ③ 2011년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사업지원의 근거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은 도시농부를 육성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2012년 현재 전국 4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을 설치, 농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체험, 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②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지역별로 텃밭농원 개설자와 이용자들은 ‘도시농업네트워크’를 활용, 농업활동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시민 활동과 정책 전개에 의하여 도시농부는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다. 도시농부가 농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신선한 채소 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즐거움을 기초로 하여 농업에서 파생하는 다원적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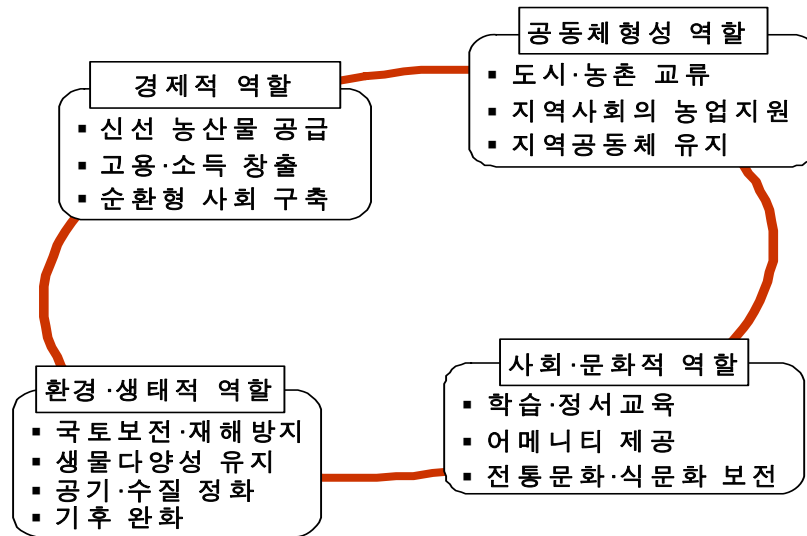
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 활동이 행해지는 것에 의해 발휘되는 기능과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등이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는 국토보전이나 재해방지 등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유지, 공기나 수질 정화, 기후 완화 등의 기능을 말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후자는 주말텃밭이나 학교텃밭 등에서 농작업이나 농업체험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학습 효과나 정서 순화, 어메니티 인식, 공동체성 회복, 전통문화나 식문화 보전 등의 기능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자가 수혜자가 된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

-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은 일반농업과 유사하지만 도시농업에서 보다 강하게 발휘되는 기능도 있다. 도시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농업체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심신치유, 경관 보전, 소음 방지, 온도·습도 조절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농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을 종합한 것이 <그림 3>이다. 이 중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기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생물다양성이나 생태보전 기능
 - ②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주민의 공동체 기능
 - ③ 학교텃밭·주말텃밭 등의 체험을 통한 교육·치유기능
 - ④ 도농교류나 귀농 등에 의한 농업진흥 기능 등이다.
- 이러한 기능이 확산되면 도시농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위기에 빠진 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 도시농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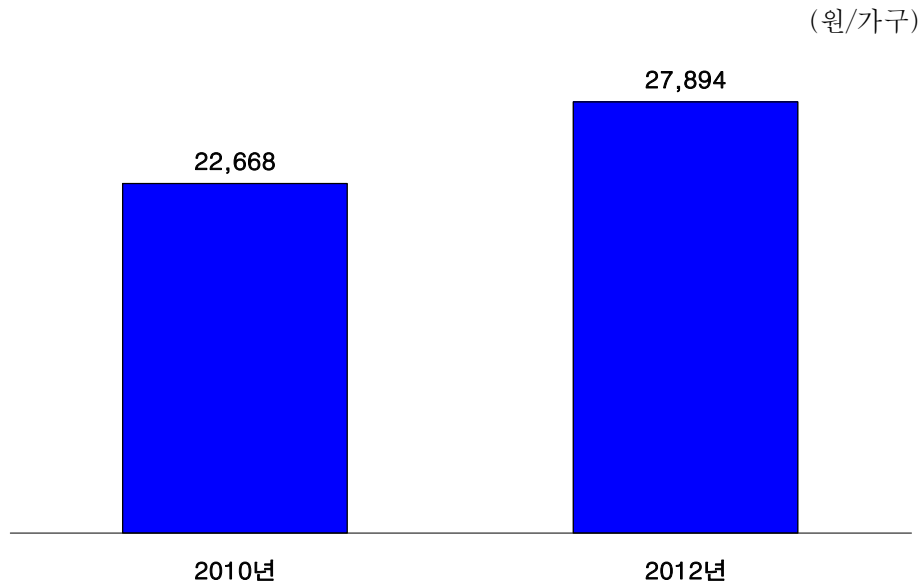
자료 : 김태곤 외. 2010.10.

□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

- 다원적 기능의 제공자는 농업생산자이지만 수혜자는 다수의 국민이며,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국토보전이나 재해방지 등과 같이 화폐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경관이나 교육효과 등 주관적 영역과 생물다양성 등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기 곤란한 기능도 있다.
- 전자는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후자는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 또는 국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수혜자인 텃밭농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텃밭농원에서 체험을 경험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하였다.

- 2012년 가구당 연간 지불금액은 27,894원이며,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환산하면 1,018억 원에 달한다. 같은 방식의 2010년 조사 결과(22,668 원) 보다 5,226원(서울시 전체 219억 원)이 증가하였다.³⁾ <그림 4>

그림 4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의 평가액



자료 : 김태곤 외. 2012.9.

- 다원적 기능의 평가결과는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된다. 즉 도시주민이 평가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도시에서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다원적 기능의 발휘와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직접지불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현행 FTA 농업대책은 FTA에 의해 농업부문 손실액 평가는 직접적인 감소액만 포함한 것이다. 농업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원적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개방에 의한 다원적 기능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서는 <김태곤 외. 2012.9>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도시농부와 도농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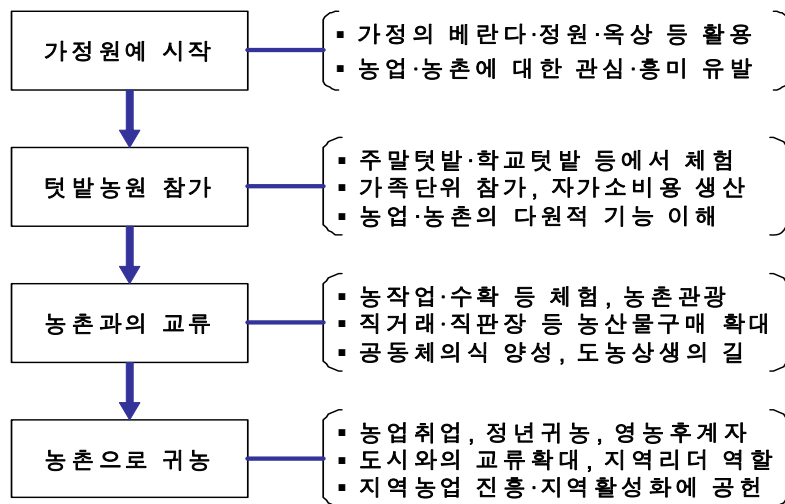
- 도시농부는 직접 농업을 체험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가 되며, 이러한 체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내에서 농업을 매개로 한 교류나 직거래를 반복한다.

□ 도시농부의 진화

- 이러한 교류는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나아가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도시농부는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영농후계자로서 정착하기도 한다. 최근 귀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도시농부의 진화와도 관련이 있다.
- 즉 도시농부는 농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을 계기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혜하는 동시에 교류나 직거래 장터가 확산되면 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도시농부는 귀농이라는 교량을 통과하여 영농 후계자로 정착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도시농부가 도농상생을 견인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도시농부가 농업에 대한 체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 보자. <그림 5>
 - ① 도시농부는 초기에는 자가 베란다나 정원, 옥상 등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가족이 함께 소비하는 가정원예를 통하여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나 흥미를 높여 나간다.
 - ② 다음 단계로 주말텃밭이나 학교텃밭 등 텃밭농원에서 체험을 확산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한다.
 - ③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농업을 진흥하고, 역으로 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도시농부의 진화과정을 보면 도시농업이란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따른 단순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농촌과의 교류나 직거래 확대, 나아가 귀농으로 발전하는 등 고령화되고 위기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피가 될 수 있다.
- 도시주민의 농업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요가 부족한 텃밭공급을 대폭 확충하고 보전하는 동시에 텃밭이용자에게 이용 편의와 경작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도시농부의 진화과정



자료 : 김태곤 외. 2012.9.

□ 텃밭농원용 농지의 확보

- 도시농부의 진화를 지원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텃밭농원용 농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확보한 농지는 장기적으로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도시텃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농가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공급부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보방안이 있다.

- ① 도시계획제도에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일정 면적의 농지를 농업용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 ② 현재 유휴화되고 있는 농지를 텃밭으로 개간하여 활용하는 방안
 - ③ 각급 학교 내의 유휴 토지를 학교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 텃밭농원의 개설주체는 현재 공공기관, 농가, 농협, 민간단체, 기업 등이다. 농지는 자가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지가 임차농지이다. 향후 개설하는 것도 현재의 높은 지가를 고려하는 경우 임차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차농지는 현재 농지법상의 임대차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사업을 준용하여 예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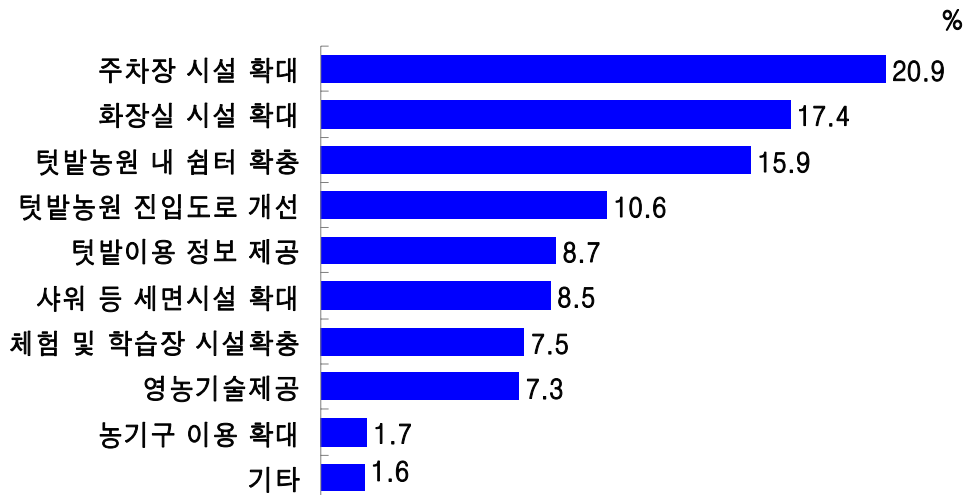
□ 텃밭농원의 이용도 제고

- 텃밭농지의 확보와 보전을 전제로 현행 텃밭농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텃밭농원 개설자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적절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생산관리나 제초 등 성실경작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숙지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 텃밭농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에 의하면,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텃밭 내 쉼터, 진입도로, 관련 정보, 세면장, 영농 기술, 농기구, 학습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을 선택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6>
- 개설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이용료에 포함하고, 시설설치에 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시설규모의 한도를 정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계약기간은 대부분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나, 마늘·시금치·봄동 등 월동채소나 다년생 작물 재배 등을 고려하여 ‘다년’ 계약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용자의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설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 텃밭에서 행해지는 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약간 다른 방식이 요구된

다. 일반농업과 같은 단일 품목의 특화된 생산보다는 다품목 소량의 균형있는 생산을 이용자는 선호한다. 또한 특정시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연중 생산하는 식부계획, 품종선택, 윤작체계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농약을 줄이는 기술도 중요하다. 텃밭농원 개설자는 이러한 점을 중시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 원예활동이 일상화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 식물에 물주는 소리(청각), 꽃이나 채소 등의 색깔이나 모양(시각), 향기(후각), 농기구 등의 도구나 흙에 대한 접촉(촉각) 등이 뇌를 자극하여 의식을 각성하고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고 일상화함으로써 특히 고령자나 심신장애자는 생활의 질이 개선된다.

그림 6. 텃밭농원의 개선사항



자료 : 김태곤 외. 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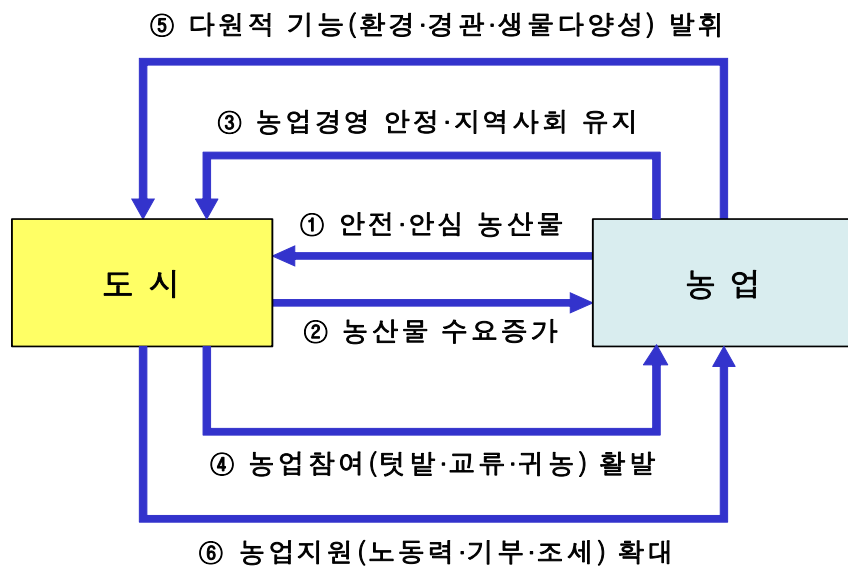
□ 도농상생의 구도

- 도시농부에 의한 농업체험의 확산,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높은 평가, 농촌으로의 귀농 증가 등 도시에서 부는 새로운 바람을 활용하여 도시·농촌상생의 구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농부는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에서 출발하여, 도농교류 확대에 의한 도농상생, 나아가 귀농·귀촌에

의한 농업후계자로의 정착 등으로 이어진다.

- 인천시와 고양시 등의 도시농업네트워크 활동을 보면, 텃밭농원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도시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형성된 도시공동체가 농촌지역과의 교류를 확산하고 있다. 단지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업 생산과 아름다운 농촌경관 유지 등에 의한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7 도시·농촌 상생의 구도



- 농업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면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농업경영의 안정이 보장되고 농촌지역이 안정화되면 도시농부 예비군의 농업참여가 활발해진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지면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것이 도시농부에 의해 도농이 상생해가는 구도이다. <그림 7>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과소화·고령화된 농업은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 다.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하는 농업의 역할이 축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 이와 같은 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농업내부에서 후계자의 확보도 불가능하게 한다. 농업이 도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경관,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고, 도시민이 교류, 직거래, 귀농 등으로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을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태곤. 2012. 6. “서울의 농업 :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 『서울경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2012.9.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박문호, 허주녕. 201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西辻一眞. 2012.5. 『マイファーム：荒地からの挑戦』. 學芸出版社.
- 葛谷榮一. 2009.1. 『都市農業を守る』. 家の光協會.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물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0. 28.

발 행 2012. 10. 29.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6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